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07.09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집행위 FP10 제안서 초안, 4개 필라 구조 채택 ... 필라2는 경쟁력기금과 밀접하게 연계될 것(7.8)

- 유출된 집행위 [FP10 제안서 초안](#)에 따르면, FP10은 새로운 4개 필라 구조*를 채택하며, 필라2는 유럽경쟁력기금(ECF)와 전략적으로 연계됨
- * 우수한 과학, 경쟁력 및 사회, 혁신, 유럽단일연구공간으로 구성
- 필라1에서는 ERC와 MSCA를 통해 기초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지만, 유럽 내 인재 유치와 유지에 더 큰 초점을 맞출 것
- 필라2는 '경쟁력 및 사회'로 이름이 바뀌고, 유럽 경쟁력 기금 규정에 명시된 '조정 메커니즘(steering mechanism)'과 '경쟁력 조정 도구(competitiveness coordination tool)'를 통해 운영될 예정
- '경쟁력' 관련 ECF의 네 가지 정책 분야(청정전환·산업 탈탄소화, 보건·생물경제·생물기술, 디지털, 복원력·국방·우주) 연구혁신을 지원. '사회' 관련 이주·민주주의·허위정보 등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한 상향식연구를 지원하며, EU 미션 및 신유럽바우하우스 연구혁신 지원도 포함
- 필라3는 혁신 지원을 지속하며, 주요 자금은 유럽혁신위원회(EIC)를 통해 지원됨
- 신설된 필라4는 유럽단일연구공간(ERA)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, ERA 정책, 연구 및 기술 인프라, 참여확대 및 우수성 확산으로 구성됨

○ 차기 예산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(7.8)

- 전반적으로 FP10은 정책 연계 강화, 민군 협력 확대, 혁신 중심 재편 등의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되며, 연구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림(FP10 독립성, 필라2의 정책 중심 성격 등 관련)
- (기타) ▲유럽 연구기관들, FP10과 경쟁력 기금 분리 전략 제안(7.3) ▲EU 집행위원회, 2030년까지 유럽을 양자 기술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한 전략 발표(7.2) ▲EU 집행위원회, 2030년까지 유럽을 생명과학 분야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발표(7.2) ▲덴마크, FP10 협상에서 큰 진전 기대(7.3)